

'G&J 갤러리' 인사아트센터서 새로운 도약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 2008년 서울 인사동 미림화방 건물 2-3층에 '갤러리 LIGHT'를 오픈했다. 서울 무대 진출을 꿈꾸는 지역 미술인들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다. 지방 공립 미술관이 서울에 자체 갤러리를 개관한 첫 사례로, 2012년 9월부터는 한국 화랑계의 중심인 종로구 사간동으로 장소를 옮겨 '갤러리 GMA'를 운영했다.

지난 2016년에는 시립미술관과 함께 전남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서울 인사동 인사마루에 'G&J 광주전남갤러리'를 열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문화상생프로젝트에서 출발한 기획이었다.

'G&J 광주전남갤러리'는 올해부터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이 공식 개관을 앞둔에 따라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과 함께 도립미술관이 운영자로 참여한다.

'G&J 광주전남갤러리'는 올해 인사동 전시문화의 중심인 인사아트센터 3층으로 이전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이름도 'G&J 갤러리'로 변경했다. 이번 이전으로 전시 공간은 70평에서 100평으로 늘었다. 운영 비용은 보증금 6억원에 월 임대료는 2000만원 수준이다. 인사아트센터에는 'G&J 갤러리' 이외에도 전북도립미술관, 부산 갤러리, 경남갤러리로 입주해 있다.

광주시립·전남도립미술관 운영 지역작가 서울진출 교두보 역할 개관 기념 '더욱 미술 생활' 전 공모 통해 올 한해 34회 전시 개최

대관 위주로 운영되는 갤러리는 공모를 통해 전시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는 광주 전남 작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공모를 진행, 광주작가 19회, 전남작가 15회 등 모두 34회의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대관료는 1주일 기준 100만원 수준이다. 전북도립 등은 시기에 따라 100-150만원을 받으며 인사아트센터 1층(100평 규모)의 대관료는 800만원에 달한다

두 미술관은 대관전 이외에 1년에 한차례씩은 공동으로 기획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아트센터 이전을 기념해 공동으로 '더욱 미술 생활'을 개최한다. 9일부터 오는 4월 12일 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광주와 전남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 중진작가 김대원·류재용·박성환·박태우·양해웅·이규용·이



G&J 갤러리가 들어선 인사아트센터 전경

지호·장안순·정선휘·조근호·조용백·한임수·한희원·황순철 등 14명 작가가 참여한다. 이번 전시는 독자적인 작업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역 중진 작가들을 중앙 무대에 알리고 코로나 19라는 인류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전승보 관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우울(코로나 블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남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심적 위안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호 관장은 "G&J 갤러리가 전남의 현대미술과 작가들을 중앙에 소개하는 장으로 더 활발히 기능하길 바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남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봄을 만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규용 작 '제업산'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복합문화관 건립

198억 투입 2023년 완공...영산강유역 고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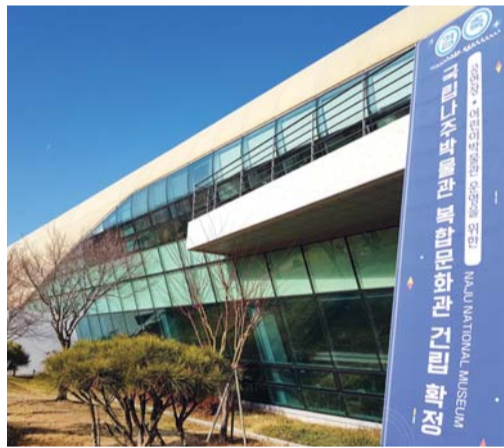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화수)은 올해는 디지털복합문화관 건립을 착수하고 영산강유역 고분 디지털 아카이브 및 실감형 디지털 체험관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진> 나주박물관은 최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물관은 종합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민 문화수요충족을 위해 디지털복합문화관 건립에 착수한다. 총 사업비 198억원 규모의 디지털복합문화관 건립은 2023년까지 진행되며 스마트 어린이박물관과 다목적 공연장, 미래형 수장고로 꾸며질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디지털체험과 문화공연 등도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영산강유역 고분문화유적 주제로 한 디지털 아카이브 및 실감형 디지털 체험관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AR, VR, 프로젝션 맵핑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적용, 몰입감을 극대화하고 전시를 입체적으로 감상하게 하자는 취지다.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을 주요 테마로 한 기획 특별전도 마련했다. 상반기에 '마한의 부엌' 전시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금은보다 귀한 옥' 전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지하 제2전시실은 고고학자, 소장품운영자, 보존과학자, 교육사 등 학예연구사의 직업체험 공간으로 꾸며 박물관에 담긴 소중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는 복안이다.

이 밖에 상설전시 질적 향상을 위한 소장품 확



보 및 관리에도 나선다. 국가귀속문화재를 인수, 등록하는 한편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에 보존과학적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기관의 거점 역할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I 로봇 '큐아이'와 두근두근 문명속으로

ACC 어린이체험관 새단장...세계 4대 문명 콘텐츠로 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어린이 전시체험관을 새 단장했다.

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박태영)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은 최근 어린이문화원 어린이체험관을 새롭게 개편하고 문화전시 안내 로봇인 '큐아이'를 도입했다. 비대면 시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하게 문화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먼저 ACC는 어린이체험관 지식과 문명 영역 '아시아 건축' 공간을 아시아 문화를 폭넓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면 개편했다. '두근두근 문명 속으로' <사진> 공간으로 명칭을 바꾸고 세계 4대 문명인 황허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을 모티브로 구성한 것. 특히 4대 문명 속 아시아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문명의 발전을 조망할 수 있도록 꾸민 것이 특징이다. 전시공간은 모두 다섯 개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도입부에선 '세계 속 4대 문명으로 떠나볼까?'를 주제로 4대 문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두 번째 '붉은 흙이 일궈낸 황허 문명으로 떠나볼까?'는 갑골문자를 활용해 한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계획도시, 인

더스 문명으로 떠나볼까?'와 '인류의 지식창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떠나볼까?'가 주제다. 전자는 그림인장과 관개수로로 활용한 체험물로 인더스 문명 속 계획도시를 만날 수 있으며 후자는 메소포타미아와 관련된 실물 체험물을 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문명과 문자를 알아볼까?'는 한글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체험이 가능하다.

이번 개편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운영되며, 어린이가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 창의적사고를 바탕으로 아시아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인공지능로봇 '큐아이'는 비대면 시대 맞춤형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톡톡히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 속 아시아는 어디야?'라는 안내해설은 아시아의 생활문화와 특징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설명할 뿐 아니라 ACC의 콘텐츠와 영상자료, 주변관광지 정보 등도 제공한다. 특히 관람객이 원하는 특정 지점까지 직접 동행해 안내하는 역할도 수행하며 해설 댄스성과 자막을 제공해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도 강화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생활안정자금 지원...26일까지 신청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봉년)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과 공연행사업체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지난 5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지원은 예술인 1인당 50만원, 공연·행사 관련 업체당 100만원 등 2개 사업에 11억여 원 규모로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예술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광주시거주자(2021.2.4. 기준)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 유효하여야 하며, 문화예술강사는 2020년 강좌(행사) 취소로 급여가 미지급된 자가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26일 오후 5시까지이며 지원규모는 10억 원으로 총 2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이메일 주소 gjcf7439@naver.com) 접수가 원칙이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처는 문화재단 2층 공연장으로 오전 10시-오후 5시(점심시간, 공휴일 제외)까지다.

문화예술공연·행사 관련업체 지원 자격은 2020

년 1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전시 및 행사 대행업, 공연기획업, 공연기술업체로서 최근 3년(2018-2020) 내 광주시 관내에서 개최된 행사·축제에 참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 대응 문화예술단체 긴급지원 및 민간공연장 긴급지원금 등 수혜업체는 제외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26일 오후 4시까지이며, 지원 규모는 1억 원으로 총 10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빛고을시민문화관 3층 광주시민에서 오전 9시-오후 4시(점심시간, 공휴일 제외)까지 접수를 진행한 뒤 심사를 거쳐 10일, 3월 5일 두 차례 지급한다. 광주시 홈페이지,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670-7439, 7435, 743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진 장편소설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엔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저자 이진

조선의 시인 허난설헌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난설헌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

저자 이진